

The Story

- 물동량 리포트
2015 양산ICD 물동량
- 이 슈
2/4분기 ICD 이슈
- News +
2/4분기 항만물류동향
- 전문가 칼럼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통한 한·중·일 물류효율 비교
- 이야기 나눔이
태국 여행기
정소영 사원 (부제이스)
영화 <연평해전> 관람 후...
이동훈 과장 (양산ICD 기획관리팀)

The Magazine

- 불후의 명곡
듀스 <여름 안에서>
- 소소한 라이벌
장여 VS 복분자
- 스포츠는 살아있다
볼링
- On the road
부산 부평강통시장이시장
- 그 카페
부산 송정 <Kisha>
- 여행을 여행하다
지수정 동굴나라

한바탕, 그
여름

작열하는 태양, 질푸른 바다, 초록으로 우거진 산이
홍겨운 축제를 여는 계절입니다.
뜨겁게 혹은 시원하게
이 여름을 한바탕 즐겨봅시다!

Happy Day

여는 시

여름 한낮

오 순 택

소나기가 작은 복을 두드리듯
연잎을 밟고 지나가면

매미는 미루나무 가지에 앉아
연주를 한다.

호박 덩굴이 살금살금 기어가는
울타리 너머로
쏘옥 고개 내민 해마라기 얼굴이
햇볕에 누렇게 익은 아빠 얼굴 같다.

아까부터 장독대 곁 꽃밭에선
봉숭아씨가 토크톡톡 여문다.

CONTENTS

Jul 2015 Vol. 42

04

The Story

- 04 **물동량 리포트** / 2015년 양산ICD 물동량
- 06 **이슈** / 2/4분기 ICD 이슈
- 08 **News +** / 2/4분기 항만물류동향
- 14 **전문가 칼럼** /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통한 한·중·일 물류효율 비교
- 20 **이야기 나눔이** / 태국 여행기 _ 정소영 사원 (국제이스
영화 <연평해전> 관람 후... _ 이동훈 과장 (양산ICD 기획관리팀)

24

The Magazine

- 24 **불후의 명곡** / 듀스 <여름 안에서>
- 26 **소소한 라이벌** / 장여 VS 복분자
- 28 **스포츠는 살아있다** / 볼링
- 30 **On the road** / 부산 부평강통시장이시장
- 34 **그 카페** / 부산 송정 (Kisha)
- 36 **여행을 여행하다** / 자수정 동굴나라

2015년 양산ICD 물동량



년도별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Y(TEU)		1,330,885	1,123,385	1,065,380	1,025,146	646,564	395,075	293,418	195,496	157,490	138,962
CFS(R/T)		1,330,680	1,145,602	1,039,705	1,209,461	1,007,769	1,185,602	868,759	670,178	562,765	416,211
일반화물(TON)		-	-	8,439	204,101	366,438	522,791	639,453	820,225	923,647	1,272,300
전년 대비 증감율 (%)	CY	+10.2	-15.6	-5.2	-3.8	-36.9	-38.9	-25.7	-33.4	-19.4	-11.8
	CFS	-6.1	-14.0	-9.2	+16.3	-16.7	+17.6	-26.7	-22.9	-16.0	-26.0
	일반	-	-	-	-	+79.5	+42.7	+22.3	+28.3	+12.6	+37.7

2015년도 컨테이너 및 화물처리 실적

◆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단위:TEU]

구 분		반 입			반 출			계		
		F	E	계	F	E	계	F	E	계
1월		1,911	3,756	5,667	900	4,333	5,233	2,811	8,089	10,900
2월		1,959	2,754	4,713	825	4,309	5,134	2,784	7,063	9,847
3월		1,840	3,250	5,090	992	4,945	5,937	2,832	8,195	11,027
4월		2,062	3,859	5,921	1,014	4,470	5,484	3,076	8,329	11,405
5월		1,781	3,361	5,142	772	3,877	4,649	2,553	7,238	9,791
6월		1,941	3,447	5,388	784	3,996	4,780	2,725	7,443	10,168
계	물동량	11,494	20,427	31,921	5,287	25,930	31,217	16,781	46,357	63,138
	점유비(%)	36.0	64.0	100	16.9	83.1	100	26.6	73.4	100

◆ CFS 화물처리 현황

구 분		화물량(R/T)			TEU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계
1월		7,145	24,123	31,268	313	1,176	1,489
2월		6,279	25,214	31,493	267	1,297	1,564
3월		8,369	24,964	33,333	370	1,378	1,748
4월		6,583	26,197	32,780	277	1,377	1,654
5월		4,515	21,367	25,882	216	1,099	1,315
6월		2,882	25,953	28,835	148	1,356	1,504
계	물동량	35,773	147,818	183,591	1,591	7,683	9,274
	점유비(%)	19.5	80.5	100	17.2	82.8	100

※ 화물량(R/T)은 소수점으로 집계되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화물처리 현황

[단위:TON]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14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6월	1월 ~ 6월	
총 계		1,272,300	549,254	674,561	22.8
택 배		654,665	303,294	336,785	11.0
일반잡화		617,635	245,960	337,776	37.3

※ 일반화물중 택배비율 약50%, 그 외 약50%

◆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현황

[단위:대]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14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6월	1월 ~ 6월	
처리량		6,704	3,678	3,768	2.4

2/4분기 ICD 이슈

(주)양산ICD 비상임 이사 변경 선임

(주)한진 및 세방(주)에서 이사변경 선임 요청에 따라 이사 변경선임이 이루어졌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임 기
(주)한진	예상곤 전무	김동희 상무	'16. 12. 31
세방(주)	박홍수 대표이사	신우철 이사	

양산ICD 입주업체 전기안전교육 실시



2015년 6월 24일 양산ICD 입주업체 대상으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지 내 전기화재 및 감전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날 교육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기술과장 신현경 팀장의 강의로 우리사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주)한진 외 9개 업체 현장책임자가 참석하였다.

2/4분기 ICD 이슈

양산ICD 물류센터 전기에너지 절감사례 조사

201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기술원 주최로 실시하는 물류센터의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한 물류설비 및 능동형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덕평물류 부설 물류시설연구소에서 양산ICD 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기지 내 냉동·냉장창고 및 물류창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물류창고 안전매뉴얼 배포가 이루어졌다.

경남지방경찰청장 방문



2015년 6월 29일 경남지방경찰청 백승엽 청장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양산내륙물류기지의 운영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이번 방문에서는 최근 화물연대의 기지 내 집회와 관련해 현장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들과의 업무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News +

2/4 분기 항만물류 동향

1

부산항 YT의 LNG 전환사업 시행 협약 체결 유류대비 약 27% 비용절감 효과...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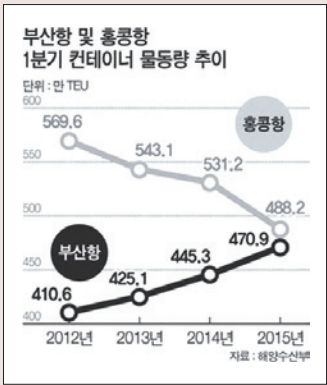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는 4월 23일 친환경 Green Port구현을 위한 '부산항 야드 트랙터 LNG 전환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Green Port구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 가스공사와 '부산항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LNG 전환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항만장비 중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야드트랙터(부산항 648대 운영 중)의 연료를 기존 유류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로 전환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₂) 약 42% 저감, 연료비 약 27% 절감, 진동 및 소음 저감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신문 4월 24일자

2

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5위 탈환 눈앞 글로벌 선사 환적화물 증가...올 1분기 전년보다 5.7%p ↑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세계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던 부산항이 5위 탈환에 다가섰다. 부산항 물동량은 상승세이지만, 5위인 홍콩항의 물동량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부산항과 홍콩항 순위가 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가 4월 28일 발표한 '1분기 항만 물동량 현황'을 보면 부산항은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분기 445만 3000TEU보다 5.7%포인트 늘어난 470만 9000TEU를 기록했다. 부산항(1분기 기준) 물동량은 2012년 410만 6000TEU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홍콩항 물동량은 급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488만 2000TEU를 처리했지만, 지난해 1분기(531만 2000TEU)보다 8.1% 감소했다. 2012년 1분기 159만 TEU였던 부산항과 홍콩항의 격차는 올해 1분기 불과 17만 3000TEU로 줄었다. 홍콩항 물동량 감소는 인근 선전항(3위)과 광저우항(8위)의 물동량이 증가한 탓이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증가세는 2M(머스크와 MSC)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환적화물 증가 덕택이었고 주요 얼라이언스 소속사의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부산항 이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산항은 환적화물 의존도가 높고 수출입화물 비중이 작아지고 있어 5위를 탈환 하더라도 몇 년 안에 수출입물량이 많은 중국 항만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환적화물은 휘발성이 강해 부산항 환적 화물은 언제든지 닝보-저우산항(4위)을 비롯한 중국 항만에 뺄릴 가능성이 있다.

국제신문 4월 28일자

News +

2/4 분기 항만물류 동향

3

부산신항 출입 항로 크게 넓힌다

급격히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출입구가 상대적으로 좁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산항 신항의 출입구 항로가 크게 확장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 후, 오는 2018년에 항로확장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부산항 신항은 2006년 12월 최초 3선석 개장 이후, 올해 5월 현재 컨테이너부두 21선석, 일반부두 2선석 등 전체 23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천595척의 선박이 입출항 할 정도로 해상 교통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물동량도 2006년 개항 당시 연간 24만TEU 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1천196만TEU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선박을 조종하는 도선사 및 선사들은 교통량 폭주 등에 따라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신항 부두는 동서 방향으로 놓인 반면에 출입 항로는 남북으로 직선화돼 있어 선박의 접안을 위해서는 급회전 등이 불가피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부산일보 5월 13일자

4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에도 제조·판매 허용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실수요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 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일반 물류터미널에도 제조 및 판매 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총 231만㎡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 양천구 등 전국 34개 일반물류터미널 에서도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 (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데일리로그 6월 17일자

5

'컨'터미널 통합 출입증 발급, 전국 항만에 출입시간 단축

전국 컨테이너터미널 통합 출입증이 발급돼 항만 출입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4개 컨테이너터미널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통합 항만출입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국 항만의 출입증을 무선 전파인식(RFID) 칩이 내장된 '통합 항만 출입증'으로 표준화 하고 출입증 발급 신청 사이트를 통합해 출입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게 된다. 그동안 항만을 출입자가 항만출입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각 항만공사에 발급을 신청했다. RFID 칩이 내장된 출입증으로 '컨' 터미널을 출입하면 기존 바코드 방식의 출입과 비교했을 때 게이트에서 정차 후 출발 까지의 시간이 약 10초에서 3초로 단축된다. 부산항과 광양항 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월 22일부터 통합 항만출입증을 교체 발급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통합 출입증으로만 '컨' 항만 출입이 가능하다.



국제신문 6월 21일자

News +

2/4 분기 항만물류 동향

6

부산항 신항, 항만서비스 강화로 새롭게 도약 해수부,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 변경고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입구에 위치한 토도 제거 공사, 3만 톤급 이상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남측 항만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 새롭게 반영된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내용의 핵심 내용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선박대형화에 적기 대응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한 토도는 18,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본격화로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토도 제거사업이 확정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선박의 초대형화에 대비하여 부산항 신항 항로의 수심을 기존 15m~16m에서 17m로 증심 준설하고, 항로도 크게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토도 제거사업이 본격화되면 초대형선 입항이 원활해져 해운선사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그동안 부산항은 3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에 대한 수리, 선박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우리나라 국적의 대형선박들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시설을 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위치 및 규모,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업은 약 7,400억 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며, 연간 7,42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44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컨테이너 하역 요금 인가제 7월 1일부터 시행

○ 신항 남측 우회도로 개설

부산항 신항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2-2단계, 2-3단계, 2-4단계 등 13선석)과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하게 되는 남측 우회도로도 신설된다. 현재 부산항 신항 남측을 연결하는 노선은 신항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용하고 있는 임항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단지 사업이 계속 진전될 경우 심각한 병목현상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남측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와 국지도 58호선(거가대교 노선)을 직접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함으로써 부산항 신항 남·북측 교통량이 분산되어 북측 임항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에는 다대포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의 확장·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해상치안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신문 6월 29일자

컨테이너 하역요금 및 부두운영회사 관리 등 국내 항만 운영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개시됐다. 지난해 3월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015년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운영지침’을 발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각 지방청은 부두운영사들로부터 신고 받은 희망 인가요금을 적정성 검사를 거쳐 확정,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 4개 부두, 신항 2개 부두를 대상으로 하역요금 인가제를 시행한다. 북항에서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통합감만),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선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감만), 한국하치슨터미널(자성대) 등 4개 부두, 신항에서는 한진해운신항만(HJNC), 현대부산신항만(HPNT) 등 2개 부두가 적용 대상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상률을 지난해 가격을 기준으로 해 6.9%가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역요금 인가제는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료는 10년 전에는 6만 원대를 유지했으나 지금은 4만 원대로 떨어져 하역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인가제 시행이 낮은 하역요금으로 인한 북항 등의 운영사 경영수지 악화 해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두운영회사(TOC)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항만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신고제 시행 부두			
■ 인가제		■ 신고제	
북항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통합감만)	없음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선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감만)		
	한국하치슨터미널(자성대)		
신항	한진해운신항만(HJNC)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 부산신항국제터미널(PNIT) (이비엔씨티(BNCT))	
	현대부산신항만(HPNT)		

부산일보 6월 30일자



박 호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통한 한·중·일 물류효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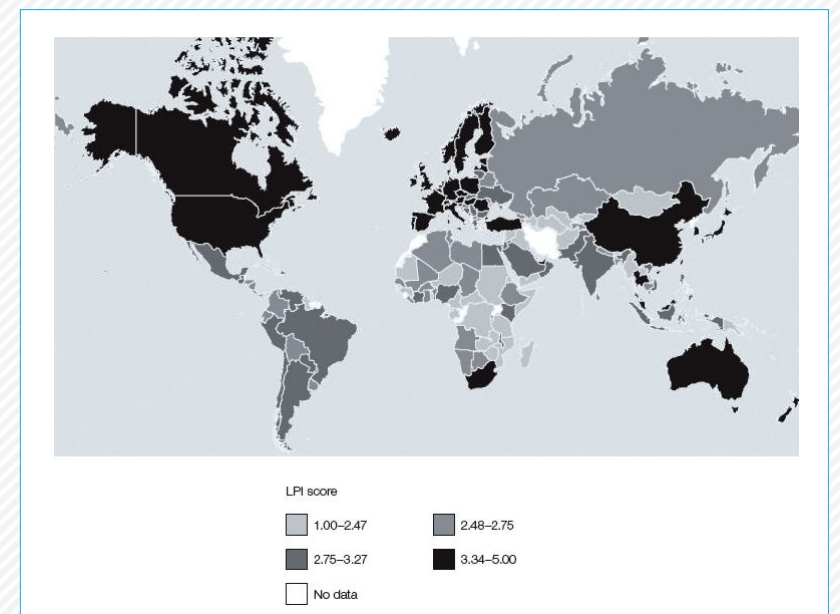
1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 및 국가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물류 분야의 효율 증대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물류 분야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1,000명 이상의 전 세계 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7년에 통관절차의 효율성(Custom), 물류인프라(infrastructure), 국제수송(Inter-national shipments),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물류추적(Tracking & tracing), 국내물류비(Domestic logistics costs), 적시성(Timeliness)의 7개 항목에 대해 각기 0~5점을 부여하여 국가 간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해 왔다. LPI는 현재 총 4회(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발표되었으며, 초기 7개 항목에서 2014년 6개 항목(Domestic logistics costs 제외, Logistics competence → Logistics quality and competence)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국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1〉
2014
Logistic Performance Index



〈자료 : World Bank(2014),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그림 1〉에서와 같이 물류성과지수는 유럽, 북미, 일부 아시아지역(한중일)을 중심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선진국들의 높은 경제발전과 성장에서 물류관련 정책개선 및 인프라 투자 등의 지원이며, 타 지역 대비 높은 물류효율을 보일 수 있다.

〈표 1〉
2014
LPI 상위 50개국 현황

rank	Country	score	rank	Country	score
1	독일	4.12	26	포르투갈	3.56
2	네덜란드	4.05	27	아랍에미레이트	3.54
3	벨기에	4.04	28	중국	3.53
4	영국	4.01	29	카타르	3.52
5	싱가포르	4.00	30	터키	3.50
6	스웨덴	3.96	31	폴란드	3.49
7	노르웨이	3.96	32	체코	3.49
8	룩셈부르크	3.95	33	헝가리	3.46
9	미국	3.92	34	남아프리카	3.43
10	일본	3.91	35	태국	3.43
11	아일랜드	3.87	36	라트비아	3.40
12	캐나다	3.86	37	아이슬란드	3.39
13	프랑스	3.85	38	슬로베니아	3.38
14	스웨덴	3.84	39	에스토니아	3.35
15	홍콩	3.83	40	루마니아	3.26
16	호주	3.81	41	이스라엘	3.26
17	덴마크	3.78	42	칠레	3.26
18	스페인	3.72	43	슬로바키아	3.25
19	대만	3.72	44	그리스	3.20
20	이탈리아	3.69	45	파나마	3.19
21	한국	3.67	46	리투아니아	3.18
22	오스트리아	3.65	47	불가리아	3.16
23	뉴질랜드	3.64	48	베트남	3.15
24	핀란드	3.62	49	사우디아라비아	3.15
25	말레이시아	3.59	50	멕시코	3.13

〈자료 : World Bank(2014),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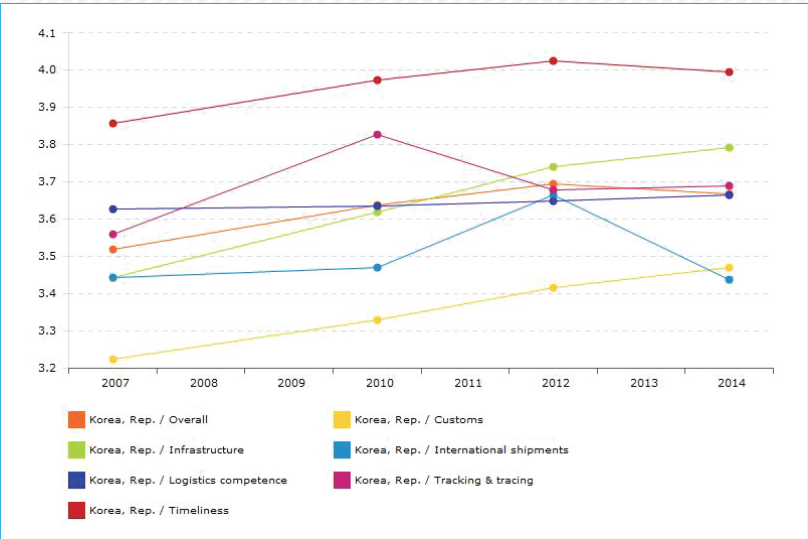
LPI는 국가별 물류성과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APEC(Asia Pacif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는 물류, 통관, 수송 등 공급망 연결의 프로세스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지수인 LPI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2009~2011년 LPI 평가 점수가 약 0.3% 개선되었고, 선진국은 물류거래비용에서 1.7% 하락한 반면(3.84→3.77), 개도국의 경우 1.2% 개선(3.22→3.26)되어 물류 관련 개선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물류성과지수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07년 최초 발표된 LPI에서 우리나라는 3.52점으로 전 세계 150개국 중 25위(상위 79%)의 순위를 나타냈다. 2009년에는 3.46점을 기록하여 155개국 중 23위(상위 84.7%)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2012년은 3.70점으로 전년대비 평균점수가 상승하여 21위(상위 86.2%)를 기록하고, 최근 발표된 2014년 순위에서는 2012년과 동일한 21위(상위 85.4%), 3.67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2〉는 LPI 평가항목별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2014년 우리나라는 적시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4.0)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운송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3.44)를 나타내었다.

〈그림 2〉
우리나라의
LPI(2007~2014)



〈자료 : The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http://lpi.worldbank.org/>)〉

2007~2014년 우리나라의 LPI 평가지표 중 통관절차의 효율성(2007년, 3.22→2014년, 3.47)과 물류인프라(2007년, 3.44→3.79)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물류역량은 2007년 3.63에서 2014년 3.66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물류추적(2007년, 3.56→2014년, 3.69)은 점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변화에서 2010년 상승 후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운송은 2012년 급격한 하락으로 2007년과 2014년에 동일한 3.44를 보였다.

3한중일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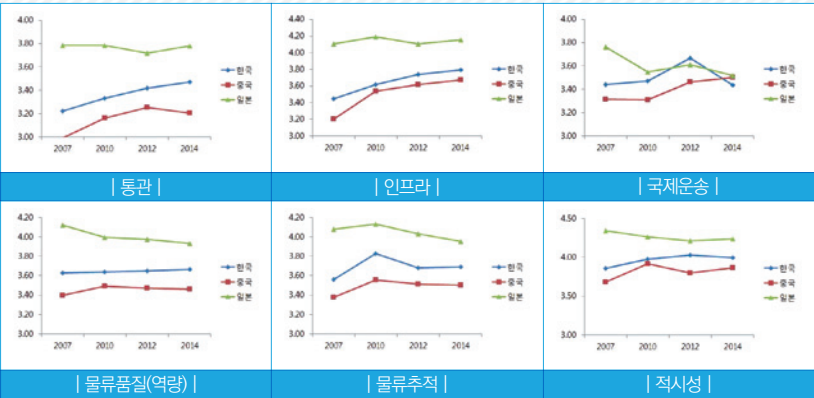
한중일 물류성과지수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일본은 2007년 6위(4.02)에서 2014년 10위(3.91)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중국은 2007년 30위(3.32), 2012년 26위(3.52), 2014년 28위(3.53)으로 순위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점수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순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표 2>
한중일
LPI 비교(2007~2014)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07	종합점수	3.52	3.32	4.02
	순위	25	30	6
	상위 %	79.0	72.8	94.8
2010	종합점수	3.64	3.49	3.97
	순위	23	27	7
	상위 %	84.7	79.9	95.2
2012	종합점수	3.70	3.52	3.93
	순위	21	26	8
	상위 %	86.2	80.5	93.8
2014	종합점수	3.67	3.53	3.91
	순위	21	28	10
	상위 %	85.4	81.1	93.4

평가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평가지표별 점수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평가지표별 점수에서 근접해 있다.

<그림 3>
LPI 평가지표별 한중일
비교(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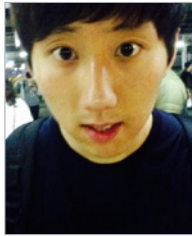


그러나 2007년 대비 2014년에는 각 평가지표별 점수 차이가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평가지표에서 한중일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운송 평가지표에서는 2014년 한중일이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다. 적시성과 인프라의 평가지표에서는 한중일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통관과 국제운송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4결론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환경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별 물류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로 LPI를 들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LPI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한중일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21위로 지속적인 LPI 순위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의 LPI를 비교하면, 일본이 가장 높은 지수와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평균점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순위의 변동과 함께 평균점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물류분야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LPI 지표 중 물류역량(품질) 부분에서 같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 역량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운송 부분에서 점수하락을 통한 경쟁력 감소에 대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거점 진출 등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소명 사원
(주)제이스

태국 여행기

태국이라는 나라는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행지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일단 태국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류열풍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매우 우호적이어서 싸움만 걸지 않으면 위험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방콕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럽과 일본을 합쳐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방콕의 좁은 길을 걸으면 하수구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쥐들이 엄청 많이 다녔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좁은 길은 피해서 여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걷는 것이 싫으시다면 요금이 저렴한 택시를 추천합니다. 태국 전통 음식은 향신료 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음식을 피하고 싶으시면 인근 패스트 푸드점을 이용해도 될 듯 하구요.

태국은 인구의 90%이상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왕궁이나 사원에 들어갈 때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주 곤란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어서 사원이나 왕궁이 있는 관광지를 가시게 된다면 긴바지를 입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태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서양 사람들이 많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태국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관광객을 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양식 맥주집(PUB)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팁 문화가 있는데 팁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조금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주면 많은 직원들이 주위를 돌아다닐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불일을 볼 때도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팁을 원하고 손을 씻으면 수건을 주면서 팁을 원합니다. 재빠르게 도망가시길...



태국여행에서 꼭 체험하셔야 하는 것은 발마사지입니다. 많이 걸으시면 발이 피곤한데 발마사지를 받으시면 피로가 확 달아납니다. 가격도 싸고 오래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여행에서 좋은 점은 싱싱한 해산물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길에 있는 야외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라서 불일은 숙소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게 길에 여성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깨는 굉장히 넓지만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걸면 도망가세요.

태국을 여행하면서 태국인들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 태국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장난으로 가수 싸이가 삼촌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믿어서 제가 더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순박하고 친근한 태국사람들이 너무 정이 가더군요.

태국여행에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관광지는 파타야의 산호섬입니다. 파타야 산호섬은 당연 빠질 수 없는 태국여행 필수코스로서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맑아 산호초를 볼 수 있는 곳이며, 흥미진진한 해양스포츠의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노쿨링, 스쿠버다이빙, 패러세일링 등 해양스포츠를 맘껏 즐기고 싶으시다면 파타야 산호섬을 강추합니다! 수영하다가 힘드시면 수박주스 한잔 드시면 갈증해소가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친절함 사람들, 그리고 저렴한 물가와 최고의 마사지... 태국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태국여행을 가기 전에는 굉장히 치안이 안 좋고 무섭고 위험한 나라로 생각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갔다 온 이후로는 너무 놀기 좋은 나라, 관광하기 좋은 나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국으로 휴가 떠나는 건 어떨까요? 이번 여름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화 〈연평해전〉 관람 후...



이 동 훈 과 장
(주양산ICD 기획관리팀)



뉴스로 연평해전을 접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난, 역사의 한 사건이 되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 나도 연평해전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해군들과 비슷한 나이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월드컵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사건을 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영화를 보는 내내 한쪽 마음이 무거워졌다.

영화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 중, 두 번째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더욱 긴장감이 더했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지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 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31분간의 교전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어찌 보면 상영시간이 긴, 지루한 전쟁영화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전쟁 영화처럼 뭔가 특별한 영웅들의 활약을 담은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 형일지도 모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사와 일상을 많이 보여 주고 그들의 외로운 싸움을 그려냈다는 것이 나에게 무척 와 닿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자 그 누군가의 아들이자 희망이었던 윤영하 정장, 송고한 학생인자 아들의 장례식에서도 애써 담담했던 윤영하 정장의 아버지, 언어장애를 가지고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의무장 박동혁 병장, 친형 같이 부대원들을 챙기며 아내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모른 채 침몰하는 배안에서 조타를 놓지 않은 한상국 조타장, 그 외에도 참수리 357호에 있던 모든 해군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나라면 총포탄이 빗발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으로도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엄청났을 거라 생각된다.



영화관람 후 며칠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저곳 언론매체를 통해 연평해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순탄치 않은 영화 제작과정에서부터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느끼는 슬픔과 공분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전사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으며, 십 수 년이 지난 후 한 영화를 통해 송고한 희생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를 더욱 자극시켰다. 또한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긴 시간을 지내온 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순직자든 전사자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이나 보상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으로 돈을 좀 더 받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일이며 국가가 앞장서 합당한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해군장병들을 추모하며 머리 숙인다.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듀스 〈여름 안에서〉

대한민국에 힙합문화를 전하다

대한민국 땅에 힙합(Hip-hop)음악의 씨를 뿌린 힙합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김삿갓〉을 부른 홍서범이라고 할 것이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꼬뿌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는 랩개그(?)를 선보인故서영춘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힙합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랩에 가까우니 패스!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도, 시나위 출신의 서태지가 록(Rock)을 기반으로 한 댄스 음악을 추구했으니 오롯이 힙합을 추구한 팀은 아니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라임(Rhyme)을 완벽하게 갖춘 가사를 썼고, 비트박스와 디제잉 그리고 그래피티 등의 힙합문화를 선보이며 힙합을 대중문화 깊숙이에 각인시킨 이들은 이현도와故김성재, 바로 듀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불현 듯, 불후의 명곡이 되다

듀스는 1993년에 데뷔앨범 『DEUX』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나를 돌아봐〉로 활동하며 단숨에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해 말 곧바로 2집 『DEUXISM』을 발매하고 1994년으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우리는〉, 〈Go! Go! Go!〉, 〈악한 남자〉 등의 곡들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얻었다. 또 쉴 틈 없이 2.5집 앨범 『Rhythm Light Beat Black』을 발매하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여름 안에서〉이다.

언제나 꿈꿔 온 순간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여름이다. 짙은 하늘과 푸른 바다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이 계절이면, 마치 포문을 열 듯 여러 매체를 통해 〈여름 안에서〉가 흘러나온다. 듀스(DEUX)의 원곡은 물론 후배가수들이 다시 부른 리메이크곡도 여름을 환영하듯 대중들과 다시 만난다.

1994년의 여름은 엄청 무더웠다. 몇 십 년만의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초·중·고교에서는 단축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당시의 한 뉴스에서는 기자가 아스팔트 위에 달걀을 깨트리 프라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만큼 더위는 재앙처럼 여겨졌다.



그런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던 9월에 〈여름 안에서〉가 매체를 통해 대중을 만났다. 만약 한 여름에 이 노래를 선보였다면 아마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여름 안에서〉는 듀스의 강한 남성미보다는 부드러운 감성이 강조되어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듀스가 〈여름 안에서〉를 처음 선보인 어느 한 TV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현도는, 경포대에 행사가 있어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눈앞에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때 불현 듯 떠오른 가사가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였다고 했다. 이현도는 이를 토대로 작사를 하고 곡을 썼다고 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름 안에서

이현도 작사, 작곡

언제나 꿈꿔 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 주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니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나
태양 아래 우린 서로가 사랑하는걸 알아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니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니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니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니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저 파란 하늘아래서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듀스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 보기

스태미나를 부탁해! 장어 VS 복분자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삼복(三伏)더위가 시작된다.
에어컨 바람이 뽕뽕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온종일 보낸다면 더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만,
조금이라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기면 자칫 더위를 먹을 수도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더위를 이기려면,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보충으로 스태미나를 끌어올리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될 일!
이 더위에 당하고만 있을쏘냐?
축 늘어진 몸을 일으켜 세워 줄 스태미나 음식으로 활력을 찾자!



팔딱팔딱! 활력증진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장어의 팔딱임만 봐도 '아이쿠, 힘 좋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니 말이다. 장어에는 단백질, 칼슘,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뮤신 등의 영양소가 많은데, 특히 장어 껍질의 끈적끈적한 점액인 뮤신(Mucin)은 단백질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키고 남성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장어는 여성의 난소가 호르몬 분비 등의 제 역할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줘서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무기력함도 해소시킨다.

민물장어는 폭 고와서 그 액을 꾸준히 마시면 영양소를 큰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는데, 맛보다는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 신념(?)이 중요하다. 들기름과 물을 넣고 탕처럼 끓여 먹으면 구수한 맛이 좋다. 그런데 민물장어는 자연산을 잡기가 어렵고 양식이 힘들어 가격이 비싸다.

반면 바다장어는 민물장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이나 탕 등으로 즐길 수 있어 기호성이 좋다. 바다장어를 취급하는 대중음식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로 즐기기에 더 편하다.

요강 한 번 뒤집어 보겠는가?

뒤집어보려 해도 요즘은 요강을 잘 쓰지 않으니, 누구에게나 요강 뒤집을 일은 흔치않을 것이다. 요강을 뒤집는다는 의미를 지닌 복분자(覆盆子)에 얹힌 옛이야기 중에, '한 신혼부부의 신랑이 출타했다 돌아오는 중 허기가 지자 덜 익은 산딸기를 허겁지겁 따먹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아침 소변을 보다가 팔팔팔- 나오는 소변줄기에 요강이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해학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의 산딸기가 바로 복분자다.

복분자를 꾸준히 먹으면 남성의 경우 남성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며 신장기능 또한 강화되어 배뇨관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여성의 경우에는, 피토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 갱년기 이후 여성이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복분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아 항노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비타민 B와 C가 피부에 활력을 더한다.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에 여러모로 유용한 성분이 많은 복분자를 챙겨먹으면, 더위 먹지 않고 여름 한철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땀약벌에 쉽게 지치고 피로가 쌓이기 쉬운 여름이니만큼, 시간 날 때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또 쉴 때는 아주 늘어지게 쉬면서 스태미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챙겨먹는다면 굳건한 체력으로 건강하게 올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Bow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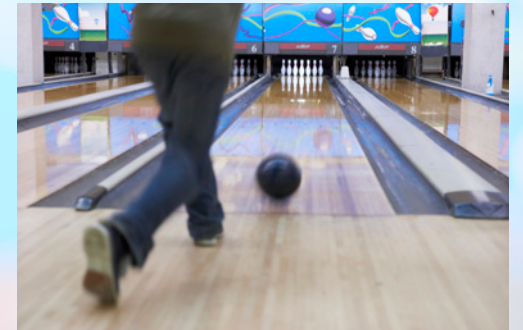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스트라이크

볼링

덥고 습한 여름철 기우는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별 것 아닌 일에도 짜증과 화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오죽하면 '불쾌지수'라는 수치가 생겼겠는가?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까지 찜통더위에 아이스크림 녹듯 쓰러져버릴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마음 다스리기에 법도(?)가 있지는 않은 법!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볼링을 하며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에어컨은 '뽕뽕', 볼링공은 '캉캉'

이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스포츠'이다. 생활권에서 가까운 볼링센터를 알아둔다면, 언제 어느 때고 들러서 한 두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전문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센터마다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클럽이 있으므로 취미생활로 즐기기에 좋다. 더군다나 계절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스포츠이므로 한 여름 폭염에도 에어컨 바람이 뽕뽕한 볼링장에서 시원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



볼링은 어려울 게 없다. 그냥 자신에게 맞는 볼링공을 골라서 10개의 볼링핀을 한 방에 다 쓰러트리겠다는 생각으로 잘 굴리면 된다. 볼링공의 무게는 6~16파운드로 다양한데, 볼링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자신의 손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 무게의 공을 고르는 게 좋다. 보통 여성은 10~11파운드, 남성은 12~13파운드의 공이 적절하다. 볼링공에는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엄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끼우고 공을 들면 된다. 그리고 볼링핀은 1번부터 10번까지 4열 피라미드 형태로 줄지어 서있는데 핀 하나의 무게가 약1.3~1.65kg 정도가 된다. 그 핀들을 볼링공으로 캉캉- 때려 맞춰 10개 모두를 다 쓰러트리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하나라도 남겨두면 스페어(Spare, 첫 투구로 다 못 쓰러뜨리고 남긴 핀) 처리를 해야 한다.

스트라이크를 계속 해내면 프레임별(1경기 당 10프레임으로 진행) 점수가 높아 점수내기를 할 때 좋겠지만 19m 정도 떨어져 있는 핀을 한 번에 쓰러트리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승부욕에 활활 불타 정색하고 볼링을 할 필요는 없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 좋을 듯하다. 더운 여름에 스트레스 날리러 왔다가 혈압 올릴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진화하는 볼링문화

'락 볼링장'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부터 볼링은 생활체육을 넘어서서 유흥문화로까지 진화했다. 볼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즐거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락 볼링장이 딱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현란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으로 흥을 돋우며 간단하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락 볼링장은 회사의 회식 장소나 각종 모임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볼링을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볼링에 집중해도 되고 못 하는 사람은 그냥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볼링공을 굴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여럿이 시끌벅적 어울리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여기를 보내는 놀이로든, 나날이 실력을 쌓아가고 싶은 취미로든, 아니면 여럿이 함께 즐기는 유흥으로든 볼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 더워서 만사가 짜증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레인 끝에 서 있는 핀에 그 마음을 실어놓고 묵직한 볼링공으로 한방에 날려 버려보자.



한밤의 길목에서, 맛과 멋 즐기기 부산 부평강통시장야시장

올 여름에도 한밤의 불청객 열대야가 드문드문 가까호호 들이닥칠 예정이라고 한다. 불청객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하지 않는 것! 집 안에서 열대야와 씨름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시원한 어딘가에서 열대야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게 탁월한 선택인 듯하다. 어쩌면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야시장인 부평강통시장야시장도 열대야에 잠들지 못할 많은 이들이 시간을 보내기 괜찮은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최초 상설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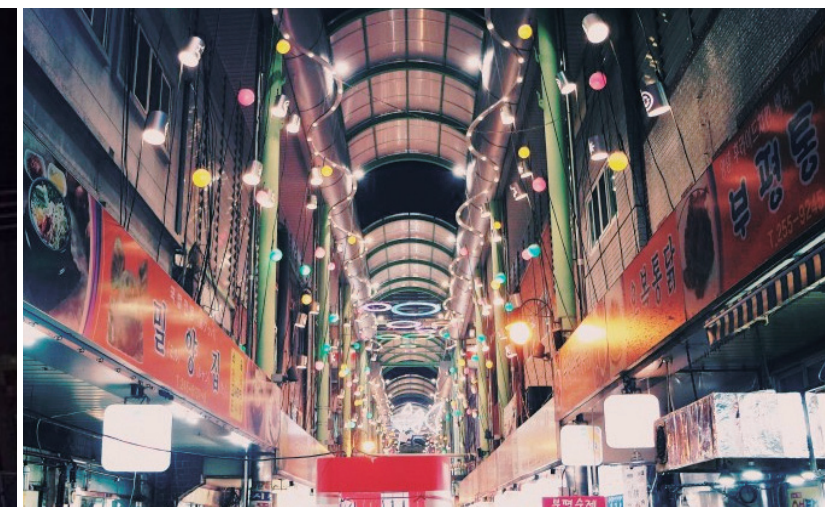
부평강통시장의 역사는 1890년대부터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최초 공설 시장인 사거리시장이 중구 부평동에 생성이 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이어져 오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인근으로 강통시장이 들어서며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 제품을 피란민들이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강통시장이 탄생한 배경인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에서 직거래로 들어오는 양주, 화장품이나 워크맨 등의 일본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면서 시장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

사거리시장과 강통시장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었고 2005년부터 부평강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단일시장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거듭났다.

2013년 부평강통시장은 '국제명소형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역사와 전통에 문화를 접목시키며 하루 평균 5,000명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더불어 그 해 10월, 부평강통시장 제2아케이드 구역에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야시장인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이 개장했다.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은 110m 남짓 되는 길에 나란히 줄지어 선 30여 개의 매대로 운영이 되는데, 다문화 음식과 부산 향토음식 등의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과 장신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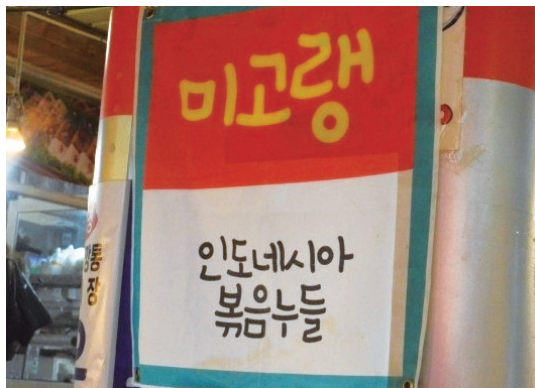


한여름 밤의 추억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이 먹거리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전국 각지, 세계 각국에서 야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어울리며 걷는 운치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더욱이 부산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7-8월의 휴가철에는 야시장 또한 불야성을 이루며 전형적인 야시장의 활기를 뽐낸다. 야시장의 활기는 야시장에서 이어지는 시장 거리와 포장마차 거리까지 이어지는데, 부산의 여름을 만끽하는 관광객과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부산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추억을 쌓고 있다.

비록 110m의 짧은 길이지만 천천히 걷다보면 여름 더위도 싹- 잊어버릴 만큼,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은 흥미로운 곳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운 곳이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올 여름 열대야의 더위를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의 열기로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



먹고 또 먹고

어느 시장이나 먹거리가 많겠지만, 부평강통시장야시장처럼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장은 드물다. 일본의 '오꼬노미야끼', 인도네시아의 '미고랭', 베트남 튀김요리 '짜요' 등과 같은, 아시아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더불어 부산어묵, 씨앗호떡 등 부산에서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관광객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먹고 또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음식들이 가득해서 방심하면 체중 1~2kg정도는 훅- 붙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이유는, 부평강통시장야시장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매대를 운영하면서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과 공유하면서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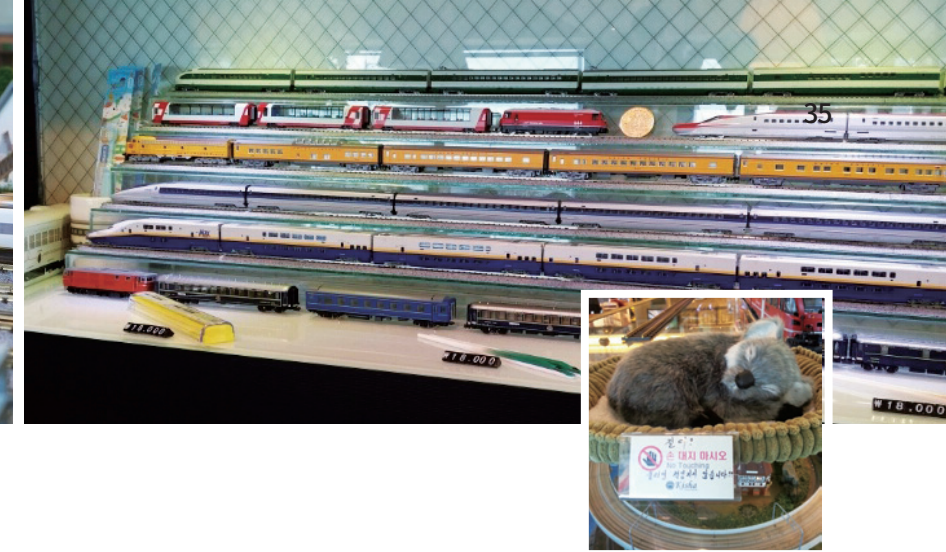
부평강통시장야시장 찾아가기!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3번길 32 부평공영주차장
- 개장시간 : 오후 7시 30분
- 위 치 : 부평강통시장 제2아케이드
- 교 통 편 :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토성역 하차
일반버스 : 8, 11, 40, 81, 96, 103, 113, 126, 135 / 급행버스 : 1000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어린 시절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를 보며 ‘철이’나 ‘메텔’이 되어 기차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꿈을 꾀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기차여행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느낌과 우주라는 무한한 상상의 공간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비록 기차를 타고 우주여행은 할 수 없지만 부산 송정 <Kisha>에 가면 지금 당장 미지의 어느 곳이라도 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질 수 있다.

기차여행을 하는 착각에 빠지다 부산 송정 <Kisha>



카페 <Kisha>의 이름은 일본어로 기차를 의미하는 ‘키샤(汽車, きしゃ)’에서 따왔다. 직설적인 카페의 이름이 이곳이 어떤 테마의 카페인지를 말해준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카페를 바라보면 기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카페 건물인데, 다가가서 보면 <은하철도 999>의 차장 피규어(Figure)가 카페의 입구에 딱하니 서있어서 내부로 들어설 때, 어쩐지 기차에 탑승을 하는 것만 같다.

카페 내부에는 차장 피규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는데, 마치 여기를 찾는 사람들의 통과역처럼 보인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시의 이정표들이 벽면을 한가득 꾸미고 있어 기차여행을 하는 기분을 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이 카페가 기차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차 디오라마(여러 모형을 배경과 함께 설치하여 특정 장면을 구성한 것, 축소 모형 및 풍경)에 있기 때문이다.

수 십 여 가지의 기차 디오라마가 카페 내부를 구성하고 있어 마치 철도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데, 평소에 기차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기차가 가진 미학을 전하는 듯 하다. 또 실제로 모형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 카페를 찾은 이로 하여금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식사나 음식을 주문하면 접시를 실은 기차가 배달을 해주기도 하는데, 음식을 먹기 전부터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기차 디오라마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함께 카페를 꾸미고 있고 또 철도 주변에서 곤히 잠든 코알라(실제로 숨을 쉬며 자고 있는데, 실제 코알라인지 인형인지는 직접 확인하시길!)도 카페에 흥미로움을 더한다.

이러한 특색이 인상적이기에 음료나 음식들의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맛 또한 카페 풍경처럼 특색이 있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 여러모로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카레가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들러서 판단하시라!

어쩐지 동심을 자극하고 낭만을 더하는 카페이기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아이들은 진귀한 풍경에 넋을 놓고 기차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고 어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기차 디오라마를 보며 그 어느 때의 기차여행을 떠올리는 것 같다.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어디로든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선 사람들로 기차역이 붐빌 것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기차여행의 낭만을 즐기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분명 인상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잠시나마 기차여행의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카페 <Kisha>를 찾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언제 어느 때고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울컥임(?)을 맛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카페·레스토랑 <Kisha>

부산 기장군 당사로 1길 1(기장읍 당사리 506-1)

Open : AM10:00 ~ PM10:00 (연중무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또는 습기를 머금은 후텁지근한 공기.
그 어느 것도 견디기가 쉽지 않다면,
여름 안에서 겨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동굴로 떠나볼까?

시원한 아니,
차가운 여름나기

자수정 동굴나라

글쓴이 권은정 여행작가
걷는 건 싫지만 여행은 좋아하는 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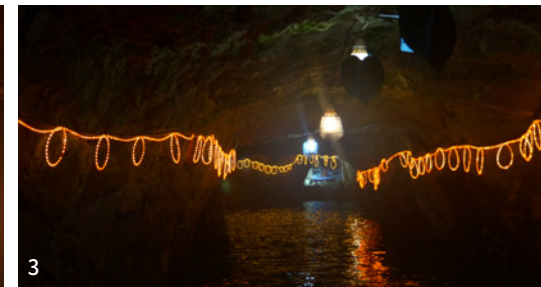
1

여름을 잊게 하는 신비의 동굴

작천천을 지나 산길로 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자수정 동굴나라'를 만날 수 있다. 자수정 동굴 외각의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인공 폭포 아래에는 '미니 놀이동산'이 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이 기구들 사이를 지나면 자수정 동굴나라 입구에 닿는다.



2



3



4

자수정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공기가 마중을 나온다. 생각지도 못한 마중에 잠깐 당황하다가 후텁지근한 바깥 공기를 잊게 해주는 시원함에 반가움을 느낀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동굴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 갈수록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걷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아~ 춥다'라는 말이 무심결에 흘러나올 정도의 추위를 느끼게 된다. 천천히 마치 미로같이 난 동굴 속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볼거리에 넋을 잃다보면 추위도 잊고 어쩐지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1. 동굴입구
2. 동굴 내 도보로
3. 동굴 내 수로
4. 보트 타는 입구
5. 자수정동굴나라 전경



5



채석장 재현

탐험하듯 흥미로운 신비의 세계

자수정 동굴은 총길이 2.5km 인공동굴이며, 평균 기온은 12℃ ~ 16℃이다. 여름에는 얼음동굴, 겨울에는 난방동굴로 불리며 여름엔 긴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머무는 곳이다.

동굴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동굴폭포이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덕분에, 숨 쉬 때마다 한겨울처럼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폭포를 지나면 이집트관, 인류변천사관, 자수정관, 조각관, 석굴암, 반구대암각화, 원주민 생활관, 채석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자수정관에서는 사람 주먹보다 큰 자수정을 직접 볼 수 있고 관람을 하는 중간에 바위 틈 사이에 붙어 있는 자수정동을 볼 수 있다. 가공이 되지 않아 어두운 보라색을 띠는 자수정동이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운 빛이 숨어있었다.

동굴 중앙에서는 1일 6회에 걸쳐 기예단의 긴장감 넘치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동굴 공연까지 본 뒤에는 바깥의 따뜻한 아니 더운 공기가 그리워진다. 그때가 되면 동굴을 벗어나 여름의 무더위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몸을 감싼다. 얼어 버린 몸을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녹이다가 또 더위를 느낀다면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탐험에 두 발로 걸었을 때와는 다른 신비로움이 느껴졌다. 수심이 깊은 곳은 2m 가까이 된다고 하니 순간 겁이 나서 느슨하게 밧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화능력이 뛰어난 보석인 자수정이 물을 맑게 해 얇은 곳은 바닥이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이곳의 지하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 물을 빼내지 않으면 동굴이 잠겨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물로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물을 얼려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한다. 시간이 된다면 이 또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여름, 무더위에 지쳤다면 잊었던 겨울을 찾아 탐험을 떠나보자. 아마 더우면 더울수록 더 시원하게 더 차갑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Tip

자수정 동굴나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자수정로 112)

* 동굴관람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마지막 입장시간 17:30)
* 공연시간 10:30, 12:00, 13:30, 15:00, 16:30, 18:00 (공연장 내 착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진행)

* 동굴나라요금표

구분	동굴	보트	동굴+보트
대인	6,000	6,000	11,000
소인	5,000	5,000	9,000

1. 동굴 분수대
2. 자수정동

여름호 퀴즈 바탕

퀴즈도 풀고 의견도 나누며
〈양산ICD소식지〉와 독자들이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

국가별 물류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를 일컫는 말로서, 영어 약자로 LPI로도 불리는 지수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여름호
퀴즈

제안 / 제언
접수

〈양산ICD소식지〉의 성장을 위한 의견이나
소식지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의
의견

양산ICD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격려,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양산IC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을 donnynix@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2015 July Vol. 42

 (주)양산 ICD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T. 055-372-0932~4, 6 F. 055-372-0937

양산 ICD(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는 내륙항만으로서의 역할과 화물의 통관, 보관, 주선, 내륙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남권 최대의 컨테이너화물 복합물류기지입니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과 연계한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재유동컨테이너의 보관, LCL화물 처리 뿐만 아니라 3자물류, 제조·판매 시설의 운영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